개교 45주년 특집 마당

◇특집: 일본 동아시아 패권정책을 경계한다◇

16 · 17면

1. 정치:일본의 대외정책 변화
2. 군사:군사대국화와 한반도
3. 경제:한 · 일 경제구조 비교

18 · 19면

4. 문화: 일본 문화 침투에 의한 고유문화의 소멸위기
5. 이! 고구려전등 역사기록을 통해본 우리것찾기
6. 기자는단: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 팽창 정책을 진단한다

설문조사Ⅰ 현정부 개혁정책을 진단한다

국제화·개방화의 물결이 사회 각 부문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까지도 그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UR협상과 쌀개방 문제에서 부터 대학사회의 커리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교육개방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일고 있는 변화의 波高는 벌써부터 우리 사회에 굵직하고도 무거운 폐마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학주보에서는 '창간 39주년 및 개교 45주년'을 맞이하여 '현정부의 개혁정책에따른 정치·사회 인식도'와 '대학발전을 위한 경희인의 의식조사'를 주제로 선정, 두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특히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또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오늘의 문제점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데 논의의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편집자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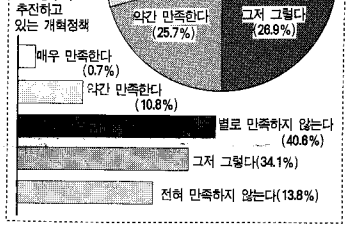
'문민시대'라는 단어가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오늘의 사회를 일컫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개혁의 시대'라고 한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개혁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UR과 쌀개방, 이회창국무총리의 경질, 삼무대 정치자금 의혹사건 등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현정부의 '개혁'의 고삐를 틀어쥐고 있는 셈이다.

현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최근 논의중인 주요 사안을 크게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우선 '현재 추진중인 각 부문의 개혁정책'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0.7%), 약간 만족한다(10.8%), 그저 그렇다(40.6%),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34.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3.8%)고 응답함으써 대체로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바람에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북한핵문제 해결 등 통일방안과 통일관'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0.5%), 약간 만족한다(4.1%), 그저 그렇다(22.6%),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46.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26.7%)고 응답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73%를 차지, 최근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부측의 대도에 상당히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족 자주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대일관계가 재정립돼야 한다'는 논의가 사회안 밖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 訪日 당시 과거청산 발언' 등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한다(0.7%), 약간 만족한다(11.2%), 그저 그렇다(22.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35.9%),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29.8%)고 답변함으로써 66%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대일 외교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한반도의 안전보장에 따른 군사·정치적 문제는 물론 무기구입에 따른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미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0.5%), 약간 만족(4.4%), 그저 그렇다(16.7%),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36.2%), 전혀 만족하지 않고(42.2%)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78%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외교정책의 혼선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항간의 평을 받은바 있는 'U.R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0.7%), 약간 만족한다(3.9%), 그저 그렇다(12.6%),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32.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50.7%)고 응답함으써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않는(83%) 정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혀 만족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가 50%를 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일안보조정회의 등 일련의 '한국 외교정책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다.

특히 5,6공화국과 비교한 김영삼정부의 각종 정치·경제적 시책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2.7%), 약간 만족한다(24.1%), 그저 그렇다(36.3%),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24.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2.9%)고 응답함으로써 다른 항목에 비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뢰하는 정치인…김대중·박찬종, 이회창 순

북한 핵문제 대응방안 만족하지 않아(73%)

한편 총학생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가운데 'U.R 등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2.9%), 약간 만족한다(15.5%), 그저 그렇다(44.4%),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27.7%),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9.5%)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단체와의 공동연대 투쟁사업'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한다(3.0%), 약간 만족한다(16.7%), 그저 그렇다(48.8%)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24.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7.1%)고 응답함으로써 '그저 그렇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대외적인 사업 이외에 '등록금 협상 등 학교행정'과 관련한 총학생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4.9%), 약간 만족한다(25.7%), 그저 그렇다(26.9%),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26.9%),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5.6%)고 답변했으며 '각 단대별 또는 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2.5%), 약간 만족한다(13.6%), 그저 그렇다(44.7%),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28.9%),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4%)고 응답해 총학생회의 대내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 만족하고 있는 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대동제 등 각종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4.6%), 약간 만족한다(25.5%), 그저 그렇다(43.3%),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18.2%),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8.3%)고 응답해 만족하는 편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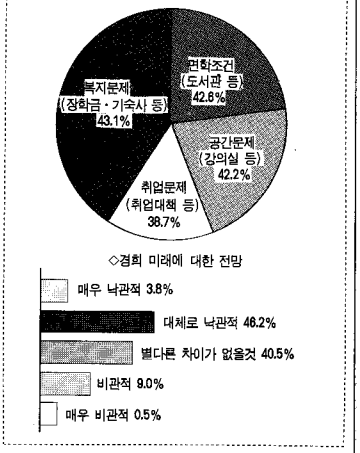
'U.R 등 각 부문의 개방화 추세'에 따른 변화의 물결에 대한 매우 관심이 높다(36.0%), 약간 관심이 있다(46.4%), 그저 그렇다(11.6%), 별로 관심이 없다(5.1%), 전혀 관심이 없다(1.0%)는 통계적 수치는 앞서 살펴본 동일항목에 대한 만족도와는 사뭇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즉 이 항목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에 '전혀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관심도는 전체의 8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는 현실적인 만족감과 기대치간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노동절' 행사의 경우 전노대와 노총간의 첨예한 갈등관계가 정치 이슈화 된 것과 관련, '해직노동자 복직투쟁 등 노동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높다(9.7%), 약간 관심이 있다(30.2%), 그저 그렇다(34.8%), 별로 관심이 없다(19.8%), 전혀 관심이 없다 (5.6%)고 답변함으로써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학생의 정치 및 사회참여'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매우 관심이 높다(14.0%), 약간 관심이 있다(30.0%), 그저 그렇다(29.0%), 별로 관심이 없다(20.0%), 전혀 관심이 없다(6.8%)고 답변해 대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등록금 협상 등 학교·학사행정에 대해서도 매우 관심이 높다(32.1%), 약간 관심이 있다(41.1%), 그저그렇다(17.9%), 별로 관심이 없다(7.2%), 전혀 관심이 없다 (1.7%)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악의 해', '대동제' 등 대내외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높다(13.1%), 약간 관심이 있다(36.7%), 그저 그렇다(31.3%), 별로 관심이 없다(15.0%), 전혀 관심이 없다(3.9%)고 응답함으로써 '한국 방문의 해'는 물론 '국악의 해', 그리고 '서울정도 6백년'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에 대해 어느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연구결과로 꼽을 수 있는 문항은 '가장 신뢰하는 우리나라 정치인을 한명만 기입하라'는 개방형 질문이었는데 조사결과 김대중(49명 27.1%)과 박찬종(49명 27.1%)이 함께 1위에 올랐으며 또 공동 3위에는 이회창(14명 7.7%)과 이부영(14명 7.7%)이, 그 다음으로 김영삼(12명 6.6%), 백기완(11명 6.1%), 홍사덕(9명 5.0%), 노무현(5명 2.8%), 이철(3명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회창 전국무총리가 정치인으로 급부상한 것이나 현직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꼽힌 점에서 상당히 이색적인 연구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설문조사Ⅱ 대학발전을 위한 경희인 의식조사

D학점 재수강, 복수전공제 등 관심

우리 학교의 대외적 이미지에 대하여 학생들은 절반 가량(49.4%)이 보통, 그 다음으로 좋은 편(35.9%)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학년별로 차이를 나타냈는데 1학년의 경우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7.1%로 가장 많았고, 2·3·4 학년의 경우는 보통 (각각 51.8%, 56.6%, 62.5%)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우리 학교가 표방해 온 대학의 목표나 이상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76.0%),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직접 기술한 우리 학교의 목표나 이상은 세계평화, 인류에의 공헌, 참인간 양성 등의 내용이었다.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바라는 학교의 목표나 이상으로 꼽은 것은 참인간 양성, 공부하는 대학, 학원의 자주화 등이었으며 기타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보면 대외적인 면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즉,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의 목표나 이상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학교의 제반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는 항목에서는, 도서관 및 기타 학술공간 등 편학의 조건(42.6%), 강의실 및 기타 자치공간 등의 공간문제(42.2%), 취업대책이나 홍보활동 등 취업문제(38.7%), 장학금제도나 기숙사 관련 복지문제(42.6%) 등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행정서비스의 경우는 보통(42.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련의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D학점 재수강제(60.5%), 복수전공제(59.2%), 조기졸업제(48.7%), 특별편제시험제(47.6%), 교수평가제(47.0%), 교과과정 전면개편(36.4%)순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아직도 시행여부를 또는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만족도를 알아보면 교과과정 개편의 경우 보통이다(46.5%), 불만족스럽다(20.1%)가 많았고, 특별편제시험제는 보통이다(40.7%)와 대체로 만족한다(30.9%)가, D학점 재수강제/조기졸업제/복수전공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각각 37.1, 38.1 38.5%)와 보통이다(각각 27.9, 31.0, 28.4%)가, 교수평가제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41.3%)와 대체로 만족한다(26.6%)가 가장 많은 답이었다. 이렇게 교수평가제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그간 교수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고 이에따라 교수평가제 실시를 대단히 환영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개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 절반 가량(46.2%)이 대체로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편이었고, 거의 유사하게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40.5%)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학년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1·2학년의 경우 대체로 낙관적이다가 가장 많은 반면(각각 58.0%, 47.0%), 3·4학년의 경우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각각 52.0%, 48.9%)가 가장 많았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대학발전 정취통신제도(옴부즈맨제도)에 대해서 학생들은 조사시점(4월 둘째주)까지 거의 모르고 있었는데(80.9%), 이는 시행초기이고 별다른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았던 탓으로 보여진다.

옴부즈맨 제도의 시행에 관해서는 약 60%가 찬성하고 있고 27.5%가 무관심한 태도(그저 그렇다)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학년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위의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전망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응답을 한 학생들의 경우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제도를 통해 학교측에 의견을 제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무응답자 15.5%를 제외하고, 49.8%가 의향이 있음을, 34.7%가 없음을 나타냈다.

바람직한 옴부즈맨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하고 싶은 조언으로는 대부분의 학생이 접수된 내용의 공개 및 적극적인 반영(실행)을 들었고, 홍보활동의 강화, 접수방법의 다양화 등이 있었으며 일부 의견으로 무기명의 의견도 접수할 것을 지적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때 우리학교의 1·2학년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 대체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 학교에 대한 자긍심도 큰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학교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학교 당국은 옴부즈맨 제도등을 적극 활용, 이러한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부〉

21세기를 향한 경희 개교 45주년 기념행사

경희 45주년

화합 한마당

당신을 초대합니다

일찍이 대학의 세계화를 선도해 온
우리대학교가 개교 4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도약의 힘찬
미래는 경희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있습니다.
경희 45주년 화합 한마당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약속을 일구어 내는
자리입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격려와
화합의 시간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총장 공영일

경희 45주년 화합잔치 일정표

본행사 (20일 18:00~21:00)	제1부	태권도시범(20분)
		응원단시범(서울·수원)20분
		음대 관악연주(40분)
		체대 무용공연(20분)
	제2부	경희역사 멀티비전 상영(20분)
		21세기를 향한 경희인의 상 기념식(30분)
	제3부	동문연예인 초청공연 (김광석, 권인하, 신형원, 윤상, 장필순외 다수)

체육행사	20일	농 구	일본임명관대학 초청시합	10:30~11:30
		여자축구	본교 대 타교팀	14:00~15:00
		남자축구	OB 대 YB	15:10~16:30
	21일	농 구	일본임명관대학 초청시합	10:30~11:30